

휘발유 공급가격 차이 “최대 17원”

SK에너지, 리터당 525.50원으로 최저 ... S-Oil은 542.29원으로 최고

정유4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주간 평균가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SK에너지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Oil과의 가격차이가 세전 기준으로 리터당 17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별로 유통구조의 차이로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5월8일 정유기업들이 4월 다섯째 주에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 판매소에 공급한 주간평균 세전 가격을 조사한 결과 보통 휘발유는 SK에너지가 가장 낮은 리터당 525.50원, S-Oil이 가장 높은 542.29원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16.79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GS칼텍스가 리터당 542.25원, 현대오일뱅크가 539.96원이었다.

세후가격은 SK에너지가 1397.89원이었고 S-Oil이 1416.3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급 휘발유 세전가격 역시 SK에너지가 584.24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비싼 곳은 현대오일뱅크로 리터당 669.05원으로 보통 휘발유에 비해 가격 격차가 더 컸다.

SK에너지는 경유와 실내등유 세전가격도 가장 낮아 리터당 각각 535.69원, 527.60원을 나타냈다.

경유 공급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551.03원인 GS칼텍스, 실내등유는 547.50원인 현대오일뱅크가 차지했다.

그러나 정유기업별 유통구조 차이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단순한 공급가격 비교로 싼 곳과 비싼 곳을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SK에너지는 물량의 대부분이 대리점인 SK네트웍스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다섯째 주의 기업별 보통 휘발유의 대리점 공급비중은 SK에너지가 96%에 달하는 반면, GS칼텍스는 22%에 불과하고 가장 가격이 비싼 S-Oil은 16.5%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정유기업별 공급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인하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08>